

韓國獸醫學教育의 발자취

—서울大學校 獸醫科大學을 中心으로—

李 榮 韶

서울大學校 獸醫科大學 學長

韓國의 獸醫科大學 또는 獸醫學에 관한 이야기를 쓰자면 겪어온 자취나 배경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舊韓末, 1907年 3月, 水原에 있던 農林學校에 獸醫速成科가 新設되었으나 같은 年度에 20명의 수료생을 배출한후 곧 문을 닫았다. 그 時代의 感覺에 맞지 않은 學問이었는데도 모르겠다. 教科內容이 아주 微弱하였던 것으로 쉽게 짐작이 되나 近代獸醫學教育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다. 獸醫術이나 獸醫學이 韓國에 土着된 것은 오래 전의 일이다. 李朝時代에 이르러서는 定宗元年(1399年)에 「鄉藥濟生集成方」에 부록된 「牛醫方馬醫方」이 最初의 獸醫學書로서 刊行되었다. 軍事的인 意義를 가진 馬政에 置重함으로써 當時로서는 상당히 과학적인 이 勞作이 있게 된 것이다. 그 후 中宗代(1506~1544年)에 질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牛·馬·羊·猪 染疫病 治療方이 간행되었다.

미시간大學校의 스미스 코어스 교수는 그의 저지에서 서기 598년에 우리나라 수의학자가 日本 皇조의 초청으로 獸醫術을 전도하여 日本에 수의술을 심었다는 史實을 소개하고 있다. 日本에 초청되었던 이 學者는 귀국하여 國內에 獸醫學校를 設立하였다고 하나 그 근거는 아직 찾아보지 못하였다.

後日에 西歐의 近代獸醫學이 日本을 거쳐서 韓國에 들어온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칼한 일이다. 일본침략시대의 獸醫學教育制度를 보면 1937년에 유일한 고등교육기관으로서 水原高等農林學校에 獸醫畜產學科가 設置되었으나 日本人을 주로 入學시켰고 韓國人은 極少數만 入學시켰다. 獸醫學과 畜產學을 뒤섞어서 교육하는 3年制 專門學校課程(中學校 5年卒業後 入學)이었으며 日本方式에 따라 주로 말을 대상으로 교육하였다. 1945年 8月 15日 解放될 때까지 이 학교의 獸醫畜產學科를 졸업한 韓國人은 30명에 지나지 않았으나 현재 各界에서 重鎮으로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분이 많다. 한편 當時에 中學校課程인 5年制 農業學校(京城, 裡里, 大邱, 義州 등에 있었음)에 獸醫畜產科가 있었고 郡農會(郡協同組合 같은 것)의 技手가 되어 일선 실무에 증사하는 초급 기술인을 양성하였다. 이와같이 二元制 獸醫學教育을 실시하고 있었다.

오늘날처럼 乳牛와 같은 고급 가축이나 애완동물이 많지 않았고 畜產食品이 대중화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식품위생에 별로 문제가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이었다. 일선 실무자는 주로 農牛를 비롯한 家畜과 家禽의 전염병발생을 감시하거나 예방접종 실시를 맡고 있었다. 수술을 하거나 진료를 하는 임상기술은 오늘날과 같이 수요가 많지 않았다. 더구나 진료를 專業으로 하는 수의사는 희소하였다. 인접국인 만주나 시베리아에는 牛族에 가장 무서운 전염병인 린더페스트(牛疫)가 常在하여 창궐하였고 때때로 우리땅을 침범하여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히는 일도 있었다. 또 당시 위생경찰업무에 속한 도축검사를 이들 일선 실무자가 담당하였다. 당시 日本에서는 이미 1935년에 實業學校 수준의 獸醫學教育制度가 廢止되었고 東京大學과 北海道大學 그리고 數個의 專門學校에서 獸醫師를 양성하고 있었다. 日本 陸軍에는 中將階級の 獸醫總監을 두

고 그 휘하에 많은 將校가 있어서 軍馬의 保健管理를 담당하여 大陣仗略에 힘 쏟을 보기도 했다.

韓日合邦 다음 해인 1911년 부산에 日本 農務省 牛疫血清製造所가 설치되어 牛疫血清免疫血清의 製造와 生産을 맡게 하고 연구를 겸하게 되었다. 들론 植民屯墾原의 功호와 자기 땅으로의 침범을 방지하는 목적이었기는 하나 이것이 韓國 땅에 근대적이고 규모가 큰 의학연구기관이 처음으로 생긴 일이었다. 그 후 종합연구기관으로 발전하여 명칭도 家畜衛生研究所로 바뀌었다. 해방이 되기까지 日本人 科學者 등에 의해서 운영되었으나 이곳에서 기록된 업적은 西洋學界에까지 알려졌었다. 中村稔治 博士의 牛疫病毒의 家兎化 백신 개발이 대표적인 업적 중의 하나이다. 해방 당시의 연구소장 越智勇一 博士는 현재 日本學術會議會長을 맡고 있다. 이 연구소 출신 韓國人 學者 몇분은 지금까지도 농촌진흥청 가축위생연구소 등에 재직하여 연구에 헌신하고 있다.

해방이 되자 미국식 문물제도가 도입되었다. 美軍政 厚生部(지금의 보건사회부)에 獸醫局을 두게 되어 지방기구도 이에 따르게 되었다. 이는 사람이나 동물의 의약업무를 통합 일원화하는 서구의 제도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생긴 것이다. 가축에 예방접종이나 하고 도축검사나 하는 것으로만 알려졌던 獸醫部가 醫部나 藥部의 本山인 厚生部에 들어갔으니 많은 人士들이 의외로 생각했을 것이다. 아닌게 아니라 大韓民國政府가 수립된 후에 얼마 안 되어 農林部의 一個課로 축소되고 말았다. 가축위생연구소는 社會部所管으로 남게 되었으나 그것도 얼마 안 가서(1949년) 痘苗部(사라에 쓰이는 天竺痘 豫防液을 研究하는 부서)를 社會部所管인 防疫研究所(當時 三清洞 所在)로 넘겨주고 農林部 산하로 옮기게 되었다. 이때 방역연구소로 전임된 수의사 중에는 현재까지도 국립보건의료연구원에 봉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바로 김경호 박사(현 병독부장), 민창홍 박사(현 생산부장)이다. 이분들 외에도 지금은 많은 수의사들이 국립보건의료연구원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해방 다음 해인 1946년 여름 영남지방에 콜레라가 만연하여 많은 人命을 앓아갔고 교통이 두절되는 등 야단이 났다. 그때 厚生部 산하 獸醫部도 방역사업에 지원되어 그 불길을 잡은 사실이 있다. 또 6.25동란 중 부산 소재 농림부 가축위생연구소와 여기에 근무하는 연구관들이 다 상궁, 장티푸스를 비롯한 人體傳染病 예방액의 생산에 戰時動員된 사실은 아울러 防疫史에 남을 일이다.

해방이 되자 大學의 制度가 미국의 제도에 따라 專門學校(舊制)들이 모두 4年制 大學으로 탈바꿈되었다. 1946년 8월 서울大學校 農科大學이 새출발을 하게 됨에 따라 獸醫學科와 畜産學科가 分離되었고 다음 해인 1947년 7월 8일에는 서울大學校 農科大學 獸醫學部로 發足하여 서울의 연건동 소재 京城醫學專門學校 校舎로 이전하였다. 여기에 이르기까지의 過渡期에 初代 學部長 故李根台 교수와 몇분들이 겪은 어려움은 많은 일화를 남기고 있다. 그해 9월 10일에 거행된 開校式은 실로 성대하였고 韓·美要人들이 많이 참석하여 韓國唯一의 獸醫學部가 처음으로 誕生함을 축하하여 주었고 徐敎弼 博士 등 뜻있는 분들은 앞날의 달전에 크게 기대를 걸어 주었다. 비로소 近代的 獸醫學教育과 獸醫學 發展의 새로운 轉機가 마련된 것이다. 한편 駐韓美軍 醫務部의 브라드氏와 매트리氏 등 고급장교들이 협력을 아끼지 않았다. 教授陣은 專任으로 故李根台 교수(初代 學部長), 故金容秘 교수(二代 學部長), 吳順燮 교수(三代 學部長), 李昌熙 교수 등과 젊은 人醫學者 세분으로 짜여졌다. 세분의 人醫學者는 研究野心에 불탄 나머지 좀 더 넓은 研究世界를 찾아 獸醫學界에 몸을 담게 되었고 著名한 學者가 되었다. 코넬大學校의 李癸明 교수와 金賢奎 교수(在美)가 바로 이러한 분들이다. 李癸明 교수는 專任講師 在任時 國費로 美國의 名門 코넬大學校 獸醫科大學으로 유학 수의학박사(Ph.D.)가 된 최초의 분이다. 귀국하여 우리 獸醫科大學을 비롯하여 서울大學校 醫科大學에서 後進教育에 힘쓰다가 코넬大學校로 다시 초청되어 지금 韓國人의 名聲을 떨치는 교수로서 활약중이다.

獸醫學部가 獸醫科大學으로 昇格된 것은 釜山 市난지인 1953年 4月이었다. 그때 부산에 있던 가축위생연구소 구계 바닷가에 자리잡고 있었다. 피난처 부산에서 두 차례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졸업식이 끝난 그자리에서 陸軍中尉로 任官되어 馬山軍醫學校로 入校한 그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새롭다. 같은 해 9월에 서울에 돌아와 보니 校舍의 많은 부분이 소실되었고 실험기구기재가 망실 또는 소실되고 말았다. 필로 無의 상태에서 재출발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몇대의 현미경 등 기구와 대학의 재산을 부산으로 옮기고 混亂時에 大學의 운영자로서 吳順燮 學長의 노고는 잊을 수 없는 일이다. 1955年頃이라고 생각된다. 미국의 ICA 원조계획으로 서울大學校의 工科大學, 農科大學 및 醫科大學에 대한 원조계획이 성립되어 미네소타大學校가 이를 맞게 되었다. 뒤늦게 이 계획을 알게 된 우리 大學은 이 계획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當時 總長이시던 崔奎南 博士께 호소하여 배터를 받게 되어 약 7만 달러에 해당하는 기재가 도입되었고 11名의 敎員이 미국에 파견되어 博士 2名이 탄생하게 되었다. 숨은 이야기로서 박사과정 어학시험과목의 하나로 日本語를 치루었다는 사실이 공판을 통하여 경무대에 알려져 학위획득을 눈앞에 두고 소환조치하라는 성화를 부려 當時 大學의 責任者였던 筆者가 공경에 빠졌으나 나중에 當時 駐美大使인 梁裕燦 博士의 힘을 빌어 해결되었다. 李承晚 大統領의 對日感情을 짐작할 수 있겠다. 그후 학위를 받고 돌아왔을 때 참으로 반가웠다. 이로써 先進美國의 獸醫學敎育과 기술의 도입이 시작되었고 미흡하나마 최선의 기재를 갖추어 제법 수의학 교육과 연구의 발전이 싹트게 되었다. 또한 미네소타大學校의 獸醫外科의 아놀드 교수가 1960년 여름부터 1年間 우리 大學에 파견되어 臨床敎育과 진료기술 향상에 박차를 가해주었다. 그 전 1957년에 보이오드 교수가 잠깐 다녀갔으나 별로 남긴 일은 없었다.

1961년까지 한 동안 반수가 훨씬 넘는 전일 교직원들이 미네소타大學校에 파견되었다. 그 동안의 강의와 실습은 서울大學校 醫科大學 교수들의 힘을 빌었다. 위생학은 車哲煥 교수, 미생물학은 故奇龍麟 교수, 외과학은 金禮欽 교수, 통계학은 엄장현 교수, 心電圖學은 李聖浩 교수가 맡았다. 수의과과학의 위치가 바로 되과과학과 인접하여 지원을 받기에 쉬운 점이 있었다. 그때 처음으로 방사선학을 敎科目에 두게 되었는데 金周完 교수가 맡았고 또 X선 장치를 설치하는데 지도하였고 담당 전임교원(현 曺在基 교수) 양성에 수고하셨다. 오래 전의 일이지만 기억에 생생하고 이분들의 고마움을 잊을 수 없다.

1957년 연건동 校舍를 서울大學校 文理科大學 理學部가 차지하고 있던 전란으로 타고 남은 청량리 교사와 교환하게 되어 이전하여야 했다. 그해 초가을 어느날 崔奎南 총장이 우리를 총장실로 초치하여 獸醫科大學 敎授會議를 주재(교수 5명)하고 교사 교환을 정하였을 때 우리는 우울하였다. 그러나 겨우 한 겨울을 지내고 또 다시 바꾸게 되어 연건동 교사로 되돌아 왔다.

4. 19를 맞이하자 뜻하지 않던 부작용이 학계를 스쳐가기도 했다. 1960년 가을 大學整備란 말이 나오더니 우리 大學이 農科大學 獸醫學科로 格下되어 수의학의 요람지라고 하는 水原 캠퍼스의 한 모퉁이를 차지하게 되었다. 13年前의 立場으로 후퇴한 우리들은 침체상태를 면하지 못하였음에도 교수들은 有關機關의 學者들과 더불어 꾸준히 노력하고 여건을 극복하여 많은 연구업적을 쌓아 문제를 해결하여 동물자원의 보호와 국민보건에 크게 기여하였다. 人獸共通傳染病인 패지뇌염 예방백 개발은 많은 업적 중의 하나로 들 수 있다. 여기서 趙炳律 교수와 金相南 교수가 미국으로 두뇌유출되었고 吳順燮 교수가 서울시立農業大學(현 서울시立産業大學)으로 진출하였으며 洪炳旭 교수가 퇴임했다. 6.25 動亂後 遷都를 前後해서 7個 地方大學에 獸醫學科가 增設된 이래 獸醫部가 量産되고 需給의 균형을 깨트리게 되었다. 近來 우리나라의 모든 水準이 急進的으로 發展向上함에 따라 畜産과 國民保健分野에서 高度로 訓練된 獸醫師의 輩出이 要請되어 왔다. 獸醫學 敎育制度 改革의 必要性을 認識하기에 이르렀으며 드디어 1973年 9月 法

이 改定되었고 교육연한이 6年으로 연장되어 歐美的 制度에 따르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全國 8國大學의 獸醫學科가 폐지되고 서울大學校에 獸醫科大學을 新設하기로 되었다. 1974년에는 文 科大學에 2年課程의 獸醫學科를 두어 2個年 동안 新制度에 의한 預科學生을 맞이하였다. 이 일이 성취되기까지는 當時의 農科大學 袁鉉九 校장의 수의학교육에 대한 탁월한 식견과 관심이 큰 힘이 되었고 길이 기억할 일이다. 또 柳達永 박사의 조언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러다가 1975년 12월 또 다시 法이 개정되어 예과과정의 폐지되었고 4年制로 환원되었다. 뿐만 아니라 경북대학교와 전남대학교의 농과대학에 수의학과가 부활되어 수의학교육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이와같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獸醫學部 이후 학사 1,538명을 배출하였고 석사 51명과 박사 15명을 낳게 되었으며 이들은 國內外 學界와 專攻業界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近來에 와서는 여러 의과대학의 기초의학 교수로 진출하는 수가 증가하는 것이 또한 새로운 경향이다. 경희대학교의 鄭亨東 교수는 生理學者로서 李興植 교수는 解剖學者로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여를 다 들 수 없다. 미국과 캐나다에 진출한 우리 졸업생들을 주축으로 在美韓人獸醫師會가 조직되어 人力輸出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또 特記할 것은 우리 大學 출신의 將校들이 주축이 되어 이들의 노력으로 이미 여러해 전에 陸軍에 獸醫兵科가 창설되었고 國軍將兵의 환경위생과 軍用動物의 保健을 담당하여 國防에 支柱가 되고 있다. 初代 獸醫兵科長 金萬泳 대령의 노력이 컸다.

1976年 3月 獸醫科大學이 14年만에 새로 고교의 스타 드높이 탄생하였다. 尹錫鳳 교수의 筆致로 달콤히 마련된 獸醫科大學 縣板을 尹天柱 총장님을 모시고 제막 테이프를 끊은 1976年 3月 2日은 우리 大學에 불멸의 등불을 켜던 날이다. 그수류 학생이 새로운 활기를 찾고 변혁분 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新生 獸醫科大學은 民族의 大學으로서 開花, 結實을 指向 전진하고 있다. 바야흐로 교육환경이 정비되어 가고 있으나 아직 더미한 실험기구, 연구시설을 갖추어야 할 문제가 시급한 과제가 되고있다. 그러나 실험실과 교실 등의 장비를 수리 또는 보강, 실험기구의 보충과 수리에 많은 진척을 보았다. 露天下에서 기르다시피 하던 실험동물을 수용관리하기 위하여 약 70평되는 현대적인 動物管理舍를 신축하는 등 大學으로서의 면목을 갖추어가고 있다. 임상교육을 강화할 목적으로 마이크로버스를 구입하였고 농촌과 목장을 순회진료하여 임상교육에 역점을 두어 크게 효율을 높이고 있다. 1977年에는 서울에 부속동물병원 분원을 신축하게 되어 있다. 임상교육에 필수한 기본동물이 되는 小動物臨床教育이 해결되는 큰 利點이 있을 뿐만 아니라 漢水以北에 있는 많은 乳牛牧場, 養鷄場, 養豚場 등의 動物診療上의 문제를 해결하는 中心機關으로 만들 것이다. 현재의 추세로 보아 최종학년 학생들을 졸업후 진출희망하는 방향에 따라 기초의학연구, 보건위생, 임상의 3分野로 나누어 전공을 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될 것이 예상된다. 약 1년 반을 교양과목 이수에 소비하고 전공과목을 2년 반에 실시하여야 하니 不合理的 점이 실로 허다하다. 그러나 교수와 학생의 노력으로 이론과 기술에서 높은 수준일뿐 아니라 高邁한 人格을 담은 수의사를 사회로 내보내는 것이 우리 大學의 一次的인 사명이라 하겠다. 이더 언급한 바와 같이 졸업생 동문들은 전공 또는 비전공 분야에서 國內外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1,200餘名의 동창선배를 가진 재학생들의 자부와 증지가 또한 크다. 母校의 발전과 후배지도에 더욱 열성을 보내주고 커다란 힘이 되어주기를 기대하는바 간절하다. 5.16 당시 乳牛가 불과數百頭에 지나지 않았으나 오늘날 10만두를 돌파하였고 기타 축산분야는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다. 축산물 식품이 국민의 식량으로서 국민소득의 향상에 따라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다. 가축 자원의 질병으로 인한 손실을 막을뿐 아니라 국민보건의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우리 졸업생의 할 일